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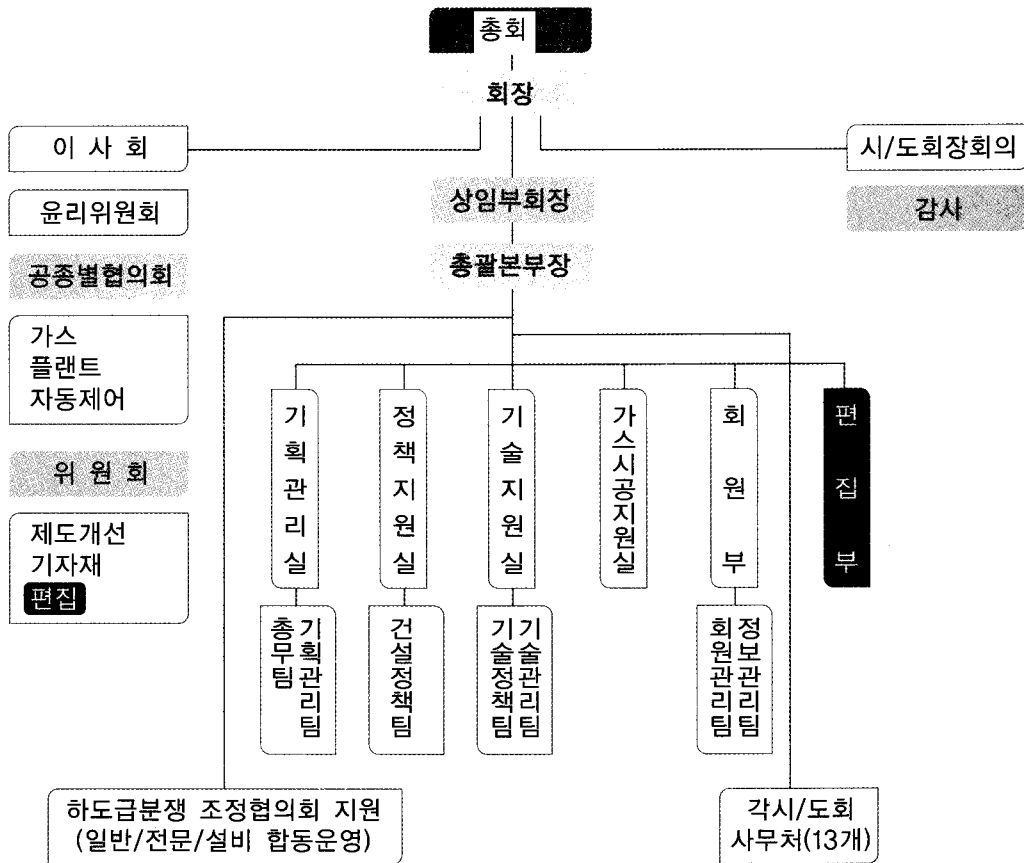


월간 『설비건설』 발간과 대내외 홍보 업무 담당, -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부 -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월간 『설비건설』 발간과 대외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편집부를 소개하며, 이번 호로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 탐방을 마친다.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시·도회 탐방과 본회 탐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편집자주]

조직도





▲ 월간 『설비건설』은 지난 1990년 5월 창간하여 통권 237호를 발행, 20여년동안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견인했다.

□ 월간 『설비건설』 발간 및 발송업무

▲ 월간 『설비건설』 발간업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월간 『설비건설』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월간 『설비건설』은 지난 1990년 5월호에 창간되었다. 1989년 11월 25일 협회가 창립된 지 6개월 만에 월간 『설비건설』이 창간된 것은 협회 및 설비건설업계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다.

월간 『설비건설』은 지난 4월호까지 통권 237호를 거치며 협회 및 설비건설업계의 위상강화와 함께 성장했다. 월간 『설비건설』에는 이러한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월간 『설비건설』은 협회소식을 비롯하여 회원사 소식, 업계소식, 신기술·신공법 등 설비건설업계가 필요로 하

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협회 및 업계소식면에 실리는 각 시·도회 총회 소식,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소식, 각종 강습회 개최 소식 등은 회원사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이렇듯 월간 『설비건설』은 전국의 6,000여 회원사가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부는 월간 『설비건설』의 발간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편집부는 매일 중순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기획특집 및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취재 및 원고요청 작업을 거친다. 신재생에너지 기획연재, 학교 및 연구원 탐방 연재 역시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나온 기획 결과물이다.

편집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중심으로 원고요청·취재 등 월간지 발행에 필요한 후속 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25일경 원고를 취합해 최종 마감하고, 편



집 작업을 거쳐 인쇄(보통 25일 이후) 과정에 들어간다.

편집부는 발행된 월간 『설비건설』의 오탈자 및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다음 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월간 『설비건설』이 매월 발간된다.

▲ 발송업무

인쇄작업을 거친 월간 『설비건설』은 매월 1일 전후로 발행된다. 발행된 월간 『설비건설』은 각 시·도회의 회원사는 물론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설계사무소, 설비건설 관련 대학 등으로 발송된다. 편집부는 발송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 DM업체에 송부하는 등 구독 및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 광고 수주업무

편집부는 또한 월간 『설비건설』에 게재되는 광고의 수주 및 관리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적은 인원 탓에 적극적인 광고수주 활동을 펼칠 수는 없지만, 광고문의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를 방문해 광고계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업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5개의 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월간 『설비건설』의 편집방향 설정 및 좀더 나은 보도를 위해 우광현 위원장[(주)화인메컨 회장]과 은근수 위원[태우기술(주) 대표], 김경희 위원(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지난 2004년 3월 구성됐다.

매월 중순 개최되는 편집위원회에서는 월간 『설비건설』의 전체적인 편집방향을 정하고 지난 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거시적인 방향의 편집 기획 및 다음호에 게재될 내용 분석, 광고현황 등을 파악하여 월간 『설비건설』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편집부는 편집위원회 회의가 매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최 업무를 돕고 있다.

□ 대외 언론 홍보 업무

지난 1989년 대한설비건설협회 창립 당시 기계설비의 위상은 매우 낮았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설비건설업계의 위상은 건설산업의 4대 축으로서 명실 공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같은 기계설비의 위상강화는 협회 창립 이후 끊임없는 홍보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편집부는 이러한 대외 언론 홍보를 맡고 있다.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분리발주 확대의 필요성, 시공품질 향상 등을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기계설비의 발자취, 협회 20년의 역사 등을 재조명했다. 최근에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의 당위성 등을 일간지를 비롯한 전문건설지에도 수시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 출입기자 관리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광고 업무도 하고 있다.

□ 각종 회의 인사말 작성 업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1년에 2번 총회(정기·임시)를 갖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등을 통해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편집부는 총회에서 발표하는 회장의 개회사를 작성한다. 개회사는 회원사가 협회의 추진 사업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협회의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야 하므로, 정책지원실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또한 전국 시·도회 총회 개최 시 본회 회장의 격려사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총회의 협회 회장 축사 등의 작성도 편집부가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기능대회 등 유관단체의 주요 행

사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축사 및 격려사를 발표하는데, 이 축사 및 격려사 작성도 편집부가 맡고 있다.

이밖에 협회의 각종 회의(시도회장 회의, 이사회, 외부 기관과의 간담회 등)의 회장 인사말씀 등도 편집부에서 작성하고 있다.

□ 월간 『설비건설』 데이터베이스 작업

월간 『설비건설』은 오프라인 외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코너의 <월간 『설비건설』>을 클릭하면 과학기술협회마을 포털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월간 『설비건설』의 원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부는 지난 1990년 5월호(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회마을 사이트를 통해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006년 11월 29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협회정보종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협회 관리자 교육에서 '시스템 우수

활용협회'로 선정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편집부

회원사 및 협회의 활동 소개, 기획특집 등을 통해 독자의 관심분야를 담은 월간 『설비건설』 발간업무, 대내외에 협회의 인지도 및 기계설비의 권익 향상을 견인하는 홍보업무, 개회사·축사·협회 보도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원고작성업무 등 편집부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미지 향상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월간 『설비건설』의 전반적인 기획과 대외론 홍보 업무 및 다양한 원고작성 등을 총괄 지휘하는 남궁은 차장, 세부적인 자료 취합과 원고작성 및 사진, 기타 잡다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길호 기자는 각 시·도회 및 회원사, 유관단체, 언론사 등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자로부터 사랑받는 월간 『설비건설』 발간과 대한설비건설협회 및 설비건설업계 이미지 향상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인형

처음의 인형은 나무, 돌, 흙으로 만들어졌고, 부장품으로 묘에 넣거나 마법의 대상으로 쓰였다.

14세기 옷을 입은 인형이 만들어지면서 18세기 중엽 런던과 파리에서는 드레스를 입은 장식용 인형이 유행했고, 이 인형의 옷을 따라 귀족 여성들의 의복이 만들어졌다. 19세기에 인형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되었고, 눈을 감고 뜰 수 있는 인형에서 스스로 걷는 인형도 만들어졌다. 메트로놈을 발명한 네포뭉은 소리 내는 인형을 만들

어 내기도 했다.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형도 인기가 많았다. 그 뒤 다양한 표정의 인형이 유행했다.

1855년 쥐모가의 인형은 목이 회전하고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의상이 무척 아름다웠는데, 유럽 각지에 퍼져 큰 인기를 끌었다. 20세기에 미국에서 야기 인형이 만들어지면서 인형은 장식용에서 장난감의 기능으로 바뀌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